

◆ 지역에서 희망을 찾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희망세상>이 매달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 첫 순서로 “풀뿌리운동”의 의미를 짚어보는 글을 실었습니다.

풀뿌리운동,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우리 세상

글 · 이 호 danggo@snu.ac.kr

많은 시민들은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용어와 달리 풀뿌리운동에 대해 낯설어 한다. 하지만, 정작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은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흔히들, 풀뿌리민주주의는 중앙정치가 아닌 지역정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풀뿌리민주주의는 대체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치적 행위와 연결시킨다. 하지만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과 약간 거리가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는 풀뿌리들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풀뿌리는 말 그대로 ‘풀의 뿌리’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사회·정치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히 권력을 지닌 자와 반대되는 일반 대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본적인 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다. 소위 민초(民草)라는 개념이 이 풀뿌리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

로 오랜 동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어 왔다. 풀뿌리란 용어는 민초의 순우리말이라고 생각하면 무난하다. 그런 점에서, 풀뿌리민주주의란 권력을 갖지 못한 민초들이 민주주의의 실질적 주인, 정치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그러한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풀뿌리민주주의는 선거 시기에 민초들이 투표로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진정한 정치의 주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위상을 확립하고 이를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풀뿌리민주주의의 내용은 직접 민주주의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풀뿌리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최근의 흐름은 고대사회에 존재했던 직접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자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대의제 민주주의가 잃어버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정치에서 소외된 시민들이 다시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되살리고자 하는 지향과 의도가 풀뿌리민주

의에는 담겨있다. 풀뿌리운동은 풀뿌리 즉 민초들이 이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참여하고 일구는 사회운동이다.

이러한 풀뿌리운동은 실상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러한 경험은 오래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이다. 두레는 민초 즉 풀뿌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영역에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참여하고 직접 결정한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이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도 바로 이러한 풀뿌리운동의 역사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풀뿌리들의 삶을 억누르는 질곡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자 농민들이 자주적으로 떨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현대사회에까지 면면히 이어져왔다. 대도시에 형성된 빈민들의 집단 거주지에서, 농촌 현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이러한 사회적 실천은 지속되어 왔다.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지키고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에 참여해 왔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각종 개발사업 및 환경파괴 행위에 저항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복지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는 행위 등은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이러한 참여와 실천은 단지 권력을 지닌 자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개입과 실천은 때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의정 또는 행

정·재정 감시운동 등이 그러한 대표적 예이다. 그리고 마을만들기로 대표되듯이,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며, 이를 발전시키려는 시도도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도서관을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고 있으며, 또 많은 지역들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방치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학습과 공동체 활동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또 어떤 지역들에서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려는 실천을 하기도 하며,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 등의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공적인 영역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풀뿌리운동의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이러한 풀뿌리운동은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 및 지향점을 갖는데, 이는 여타 사회운동과 구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첫째, 풀뿌리운동은 참여자들의 직접 참여, 직접 행동을 조직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한 이슈에 있어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고자하는 시민운동과 구분된다. 풀뿌리운동의 일차적인 관심은 시민들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점을 직접 찾아보고 해결을 위해 논의도 한다

의 참여를 조직하는 데에 있다.

둘째, 풀뿌리운동은 어떤 이슈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했느냐 하는 결과적 관점보다는 누가 어떤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점에서 첫째로 언급한 참여의 조직화도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변화를 촉발하고자 하는 지향을 갖는다. 참여자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발전시키는 중요하고 건강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변화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양식과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사회적으로도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는 풀뿌리라는 용어가 보다 근

본적인 원리라는 사전적 의미와 일치한다.

셋째, 풀뿌리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대한 개방성을 전제로 한다. 즉,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의식 및 생활의 변화는 배타적 개인의 이해 또는 자아실현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풀뿌리운동은 관계를 보다 넓고 깊게 만드는 사회적·집단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고립된 개인과 가족에서 벗어나 이웃과의 공동체적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생활과 실천을 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과 이웃들의 관계를 지역사회와의 관계로 확대함으로써, 그 참여의 이해 역시 지역사회의 공공이해와 일치시키는 발전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점차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마주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지향을 갖는다. 풀뿌리운동은 사회운동의 철학과 방법을 설명하는 개념이며, 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실체적 경향이자 흐름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사람들에게 있다. 시민들을 진정한 민주주의의 주인이자 사회 변화와 발전의 주체로 변화·성숙시키고자 하는 지향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풀뿌리운동의 실천은 특별한 계기나 이슈보다는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발견되고 구현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생활과 삶,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향해 나아간다.

글 이 호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